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지연* | 학번 | |
| 파견국가 | 캐나다 | 파견도시 | Vancouver |
| 파견대학 | Langara College | 기간 | 2017. 8. 6(일) ~ 8. 27(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다운타운과 20분정도 거리가 있지만 그리 멀지 않게 위치해있으며, 학교는 작지 않은 규모를 갖고 있다. 현지 학생들은 방학기간이라 많이 보이지 않아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이다.</p> |
| 수업 |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첫날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모두 함께 레벨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여러 개 반을 나누어 분반을 실시하며,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내용과 과제는 어렵지 않으며 과제 양 또한 많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다. 첫날 나눠주는 바인더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 가야하는 준비물은 없다.</p> |
| Activity |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진행된 Activity 중에 Kayaking, Whistler Trip 이 가장 좋았다. Kayaking은 스쿨버스를 이용해 Activity 장소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다녀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집에 도착하니깐 5시 정도였다. 처음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서 기억에 남는다. Whistler Trip은 Whistler산에 올라가는데, 곤돌라를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등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상에 올라가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져 춥기 때문에 겔옷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한다.</p>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8월 초반은 햇빛이 강렬해 선크림이나 선글라스는 준비해야한다. 8월 후반쯤 되면 일교차가 커서 너무 두껍지 않은 겉옷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와 비슷하지만 일교차가 조금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p> |
| 안전 | <p>현지 안전 상황</p> <p>치안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늦은 저녁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또한 다운타운에는 많은 홈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조금 유의하길 바란다.</p> |
| 숙소 |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가족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3주 동안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홈스테이 생활을 할 때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먼저 다가가서 가족들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한다. 그들은 홈스테이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일 것이다.</p> |
| 식사 |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홈스테이 엄마가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챙겨주셨고, 점심에는 런치 박스를 준비해주셨다. 점심 메뉴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정중하게 부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녁은 레스토랑에서 해결하거나 집에 들어가서 해결했고,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함으로써 가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일찍 귀가해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추천한다.</p> |
| 교통 |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홈스테이와 학교가 가까워서 걸어서 통학했다. 그러나 집이 멀어 버스를 두 번 정도 갈아타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버스와 스카이 트레인 모두 배차간격이 크지 않아 통학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1,755,000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여행자보험 | 31,966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
| USIM | 63,000원 | 출국 전 결제 |
| 식비 및 입장료 | 350,000원 | |
| 쇼핑 | 800,000원 | |
| | | |
| 합계 | 약 3,000,000원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USIM 카드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보다 더 저렴한 것 같다. 그래서 한국에서 구입해서 가져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전을 전부해가는 것 보다는 현지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홈스테이 가정마다 지켜야할 규칙과 제공해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공존하며 살아간다.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즐기며 타인에 대한 매너가 몸에 베인 캐나다인을 보면서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임을 느꼈다. 살짝만 부딪히거나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임에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캐나다인을 보면서 새삼 놀랐고,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만약 영어실력향상이 주된 목적이라면 홈스테이 가족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표현이나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다.

주어진 3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고, 조금 더 캐나다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영어뿐만 아니라 캐나다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만약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일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 | |
|---|--|
|  |  |
| <p>Whistler</p> | <p>키칠라노 해변</p> |
|  |  |
| <p>아쿠아리움</p> | <p>Kayaking</p> |
|  |  |
| <p>Granville Island</p> | <p>Capilano Bridge</p> |